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성도의 본분

[살전 4:1-2]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오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하였는데,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예수께서 주신 구원 안에서’라는 뜻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서 교훈을 받았다. 사도들을 통해 주신 교훈들은 오늘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그 교훈대로 행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한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지만, 인간편에서도 힘써야 한다. 성화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다. 베드로후서 1:10에서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권면한 까닭은 그들이 주 예수께서 그들을 통해 주신 명령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교훈과 명령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들의 교훈들과 명령들, 즉 신약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해야 한다.

[3-4절] [이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바를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죄가 세상의 근본 문제이므로 죄로부터의 거룩함은 모든 문제의 대답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라는 말씀은 거룩함이 무엇보다도 음란, 곧 성적인 부도덕을 버리는 것임을 보인다. 미혼자들과 독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고, 결혼한 자들은 바른 부부관계를 지켜야 한다. 바른 부부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거룩하지 못

하고 불결한 것이며 곧 음란의 죄악이다.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이라는 원어는 ‘자신의 그릇을 취할 줄’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결혼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러나 ‘그릇’이라는 말의 성경의 용법에 따라 ‘자신의 몸을 다스릴 줄’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안다’는 말은 음란에 떨어지지 않고 바른 결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도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 결혼 외의 성관계는 음란의 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큰 죄이다. 성도는 부부의 관계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켜야 한다.

[5-6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욕신의 욕망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伸冤)하여 주심이니라.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대조된다. 이방인들은 욕신의 욕망을 좇아 음행하지만 성도들은 부정당하고 과도한 욕망을 통제하고 죄악된 욕망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해야 한다. 결혼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유지해야 한다.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탈선’과 ‘외도(外道)’를 가리킨다. ‘형제를 해한다’는 말은 문맥상 성적인 탈선과 외도로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성도가 이러한 잘못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주께서 보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다. 경건한 다윗이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 밋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음죄와 살인죄 때문에 다윗의 집에 같이 떠나지 않을 것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징벌은 무서웠다. 다윗의 가정에는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동생이 이복 형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다(삼하 11장 이하). 범죄로 인해 다윗이 치룬 대가 즉 그가 받은 훈련은 매우 혹독하였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다.

[7-8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不淨)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하심임이니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요한일서 4:13에도 나오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심을 보이며, 또한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심을 보인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시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감정과 거룩한 의지를 주신다.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생각과 마음의 원천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란과 불결에 대해 보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구원하심이 그를 부정(不淨)케 하심이 아니요 그를 거룩케 하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은 분명하다. 그것은 죄인을 죄로부터 거룩케 하는 것이지, 죄와 부정(不淨)과 불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멸시하고 저버린다면, 우리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며 그 잘못은 매우 크다. 여기에 사람의 죄의 심각성이 있다. 죄는, 비록 인간 관계의 죄라 할지라도, 그 성격상 하나님께 대한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에 대한 도전이며 침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9-10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나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은 또 형제 사랑에 관해 교훈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라는 원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교훈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에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새 계명에도 있고 또 성령께서 사도들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에도 있음을 보인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오늘날 성령의 감동 속에 하는 성경적 설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 성경의 주요 교훈은 사랑이며 그 대상은 제한이 없다. 우리는 몇몇 사람만 사랑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사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 마게도나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더욱 많이 사랑할 것을 권면한다. 우리도 모든 성도들을 대하여 또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11-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조용하여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혹은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또 조용히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교훈한다.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을 삼가며 조용한 생활을 해야 한다. 잠언 10: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우리는 손으로 자기 일을 해야 한다. 노동은 좋은 것이며 사람의 의무이다. 잠언 18:9,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敗家)하는 자의 형제니라.” 사람은 범죄한 이후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살도록 정해져 있다(창 3:19). 잠언 10:4-5,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지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성도가 손으로 자기 일을 하며 살 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바르고 단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궁핍함도 없을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결코 게으르거나 낭비하지 말고, 또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며 노후를 위해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고 지혜롭게 저축도 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미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하며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 성화(聖化) 즉 거룩하고 선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지만, 사람편에서의 진실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음란을 버리고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미혼자들과 독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자신을 절제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결혼한 자들은 부부관계를 저버리고 실수하며 외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참으로 무섭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형제 사랑함을 힘써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조용히 손으로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자기 직업의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하며 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며 노후를 위해 지혜롭게 저축도 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하늘의 찬송**

[계 19:1-3]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능력과 영광(전통사본)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늘에 허다한 무리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찬송한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나라와 배교의 활동은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말세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들은 힘을 합쳐 참된 성도들을 심히 핍박할 것이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돈과 육신의 쾌락과 음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뿐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음행으로 세상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린 그 음녀, 즉 그 배교한 교회에게 공의로 갚으실 것이다.

[4-5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문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이든지 간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공훈과 능력의 구원을 찬송해야 한다.

[6-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혼인 잔치)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義)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이며 그것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표현되었다. 혼인은 연합을 가리킨다. 신부는 성도들을 가리

키며 어린양의 혼인 잔치는 부활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누릴 것을 가리킨다.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으나 그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연합으로 나타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고전 12:27). 그러나 그 연합은 천국에서 완전케 될 것이다. 그것은 구원의 영화로운 완성, 즉 영화(榮化)이다.

신부가 입게 될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옷이다(8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이다.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말했다(빌 3: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롬 10:4). 사람의 행위의 의는 불완전하다. 이사는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 즉 누더기 옷과 같다고 말했다(사 64:6). 오직 예수께서 주신 의만이 완전하고 영광스럽다. 그러나 성도는 그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비록 보잘것없어도,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위한 당연한 준비가 될 것이다.

성도들이 누릴 천국의 영광을 혼인 잔치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참된 만족을 주는 사건임을 나타낸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만족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만족보다 더 크다. 그것은 완전한 기쁨이다.

[9-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代言)의 영이래(영임이래) 하더라.

요한은 너무 감격하여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였다. 그때 그 천사는 자기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했다.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천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대언(代言) 사역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이나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큰 음녀 즉

배교한 교회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화답하여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공의의 심판과 은혜의 구원을 찬송해야 한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 즉 성도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슬픔과 질병과 고통도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천국의 그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혼인 잔치에 참여할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과 의를 간직하고 그 거룩과 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마땅한 일이다.

수요일 설교 | 예루살렘의 타락과 회복

[사 1:21-23]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었도다. 네 은은 찌끼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체원통합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 성은 본래 ‘신실하던 성읍’이었으나, 지금은 육신적 음행과 영적 음행 즉 우상숭배가 가득한 성이 되었고, 공평과 의가 충만했던 그 성은 지금 살인자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 유다 지도자들은 패역했다. 그들은 도둑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도둑들과 단짝이 되었다. 그들은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좋아했다. 그들은 고아나 과부 같은 자들의 억울한 송사를 정당하고 의롭게 처리하려 하지 않았다.

[24-27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재권능재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찌끼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흠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救贖)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예루살렘 성을 징벌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이전과 같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는 악인들을 제거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는 바벨론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 악인들도 가리킨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은 다시

경건하고 의로운 성이 될 것이다.

[28-31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테레빈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지는 삼오라기(tinder)[부싷깃](부싷돌 위에 두고 부시로 쳐서 불붙이는 물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끝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루살렘 성은 신실하고 공평이 충만하며 의가 있는 성이었고 은과 같이 가치가 있고 포도주같이 맛이 있고 즐거움을 주는 도시이었으나, 지금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찌끼가 섞인 은 같고, 물이 섞여 맛이 없는 포도주같이 되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가 어떠한지에 대해 물으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잘한 점들을 자랑하지 말고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 신앙적 상태가 어떠한지 또 우리의 현재의 도덕적, 인격적 부족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찌끼를 청결케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주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사람이나 사람 속에 있는 선한 무엇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항상 의지해야 하고 또 우리의 성화(聖化)[거룩하여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만 의지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와 방향은 의와 거룩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셨다(롬 10:4).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행 10:43 롬 3:28). 이것은 법적인 의미이며 법적인 구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으로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실제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롬 8:13).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불결한 자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현실 속에서 실제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